

제 19 권 교회와 국가

1. 정부에 관하여

출처: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 (1677/1689)

역자: 스테반 황

은 세상의 주권자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권세 아래 정부를 두시고 주의 영광과 백성의 유익을 위해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은 칼의 권세를 갖고 있으며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격려함과 함께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도록 하셨다(롬 13:1-4).¹⁾

그리스도인들이 관원으로 부름 받을 경우 그 직분을 받아들이고 그 직분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들은 그 직분을 행사할 때 특별히 공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삼하 23:3; 시 82:3-4). 이를 위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 및 이 땅의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공의를 추구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그들은 마땅히 필요한 경우에 신약 성서에 따라 전쟁을 치르는 것은 합법적이다(눅 3:14).²⁾

정부는 하나님이 이러한 목적들을 위해 세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내리는 모든 합법적인 명령에 대해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하며, 하나님의 진노함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 그리해야 한다(롬 13:5-7; 벰전 2:17).³⁾ 우리는 권세를 가진 왕들의 다스림 아래 우리가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경건함과 정직함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딤후 2:1-2)⁴⁾

~~~~~

성경은 다양한 특성으로 주 예수님을 묘사한다. 물론 그 묘사들이 위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부족함이 없이 충분히 다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최대한 그분에 대한 숭고한 사상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 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 2)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 3)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 4)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분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 빛진 순종과 고난의 끔찍한 빛을 감당하시고 대신 지불하신 보증이시다. 그분은 제사장이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며, 단번에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고, 지금은 그분의 주의 백성의 대언자와 중보자로서 그분이 원래 계셨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우편에 거하신다. 그분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시대에 그의 교회를 가르치는 선지자시다. 그분은 인간들과 천사들이 자신들의 모든 행함을 보고 드려야 할 최고의 온 세상의 심판자시다. 그의 이름은 구원자이신 예수시다. 이는 그분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은 종종 이러한 위엄과 사랑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에서 한결같이 그분을 대표하는 하나의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은 왕, 위대한 왕으로서 온 세상의 권위를 부여받은 왕이라는 사실이다. - 사무엘 데이비스 (Samuel Davies)

## 2. 정부와 교회

출처: *Authority in the Christian Life*, Psalm 78 Ministries, 2020, 50-52

저자: 장 마크 베르투드(Jean-Marc Berthoud): 스위스 개혁주의 침례교회 저자이자 편집자로 1939년 남아프리카 출생.

역자: 김현준

이 땅의 기관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하나는 국가의 도구인 정부의 실제적인 검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행사하는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검이다.

이 둘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마태복음 8장에서 백부장은 예수께 이렇게 말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낮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마 8:8-9).

이 말씀에서 인간과 일하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완전히 인간적이며, 다른 하나는 신적이다. 백부장이 고백한 대로 그가 세상에 있을 때 갖게 된 권력이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주신 것이고(사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권력에 백부장의 부하들이 복종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신적인 권력을 갖고 계시니 그분의 소유인 천사들은 더더욱 주께 복종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굳이 스스로 나설 필요가 없으시다. 그저 단순히 자신의 천사들에게 지시만 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은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일할 것이다.

다른 예도 살펴보자.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자신이 왕이라고 선언하셨다. 하지만 자신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님을 덧붙이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요 18:36).

예수께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천상의 군대가 있다. 예수님은 그 군대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때 가장 충만하고 완전한 예수님의 통치권이 나타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잡히실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자, 예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 26:53).

이것이 바로 천상의 종들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권위인 것이다. 백부장은 이 사실을 잘 인지했다. 백부장도 자신의 수하에 병사들이 있었기에, 일이 생겨도 자신이 굳이 나설 필요가 없었다. 자신이 할 일이란 그저 병사나 종에게 지시를 내리면 그만이었다. 백부장은 예수님은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므로 예수께 속한 영적인 종들을 부릴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기 위해 친히 나설 필요가 없으셨다. 예수께서는 천사에게 말로 지시만 내리시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백부장의 이 말은 참으로 굉장한 통찰력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단언하셨다(마 8:10). 로버트 잉그램(T. Robert Ingram)은 예수께서 놀라시며 선언하신 내용을 이렇게 설명한다. “백부장의 통찰력이 놀라운 것은 선포된 말씀 속에 내재된 권위의 본질을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백부장 개인의 권력은 병사와 연결되어 있기에 명령만 내리면 병사를 죽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백부장은 예수께도 이런 유사한 명령의 권한이 있음을 알았다. 게다가 예수님의 권한은 군대 사령관인 자신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백부장이 볼 때 예수님의 권위는 죄와 질병과 죽음까지 좌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부장의 권위는 예수께서 산에서 선포할 때 보여주셨던 권위를 반영하는 것에 불과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고백대로 자신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병사들에게 명령할 수는 있어도 사람을 살릴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백부장은 자신보다 월등하고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반(反)군사적인 권세에 호소했다. 하지만 예수께서 소유하신 것은 능력의 근원이었다. 참으로 백부장의 믿음과 통찰력은 기이한 것이었다.”<sup>5)</sup>

이 두 능력은 각각 용도가 다르며, 혼동해서도 안 된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항상 이 두 능력을 혼동했다. 간혹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혼동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의 의미와 범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둔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예가 방금 언급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스승을 지키려 칼을 빼든 모습이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치유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마 26:52).

이것은 검의 힘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니다. 정부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았다.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는 그 권력으로 악한 자의 생명을 취하기도 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하나님이 정부에게 맡기신 생사(生死) 주관의 권력은 교회가 행사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진술은 심지어 폭군이 그러한 권력을 지니고 있을 때도 교회에 해당한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인내와 믿음을 실천하라는 권면을 받으며, 사로잡혀 갈 지라도 타락한 국가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또한 (칼로 생명을 빼앗는) 혁명을 통해 이런 부정한 권력의 전복을 구해서도 안 된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계 13:10).

이 본문이 규탄하는 것은 현세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검을 사용하여 사형까지 포함해서 합법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관할권을 벗어나 현세 권력을 빼앗고자 혁명을 일으키며 국가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회의 영적 권한과 정부의 현세 권력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은혜의 사역, 하나님의 자비의 사역을 드러낸다.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인내와 인자하심을 보여주었다(롬 2:4).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

5) T. R. Ingram, *The Two Powers* (Houston, TX: St. Thomas Press, 1959), 4-5.

러 성욕신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오히려 회개하여 영생을 소유하고 심판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다(요 5:24).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벧후 3:9).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는 현세 교회의 몫이 아니다. 성도들이 이 능력과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때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마 19:28; 롬 16:20).

하지만 정부의 기능은 완전히 다르다. 국가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현세적이다. 공권력은 악을 저지하기 위한 용도로 검을 휘두른다. 검으로 치리(治理)하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전조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신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다. 천국 성도의 위대함은 이 세상의 사람의 위대함과 완전히 다른 척도로 측정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하나님의 가장 작은 계명에 충실할 때 그 사람은 천국에서 참으로 위대한 자로 평가를 받게 된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마 5:19).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이 누가복음 22장 24-26절에 인상 깊게 기록되어 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은 한순간이라도 공권력, 곧 “이방인의 왕들”에게 도전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들의 권력 하에 있는 백성을 다스릴 권리와 엄하게 칼을 휘두를 권리에 대해서도 도전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그렇게 지배하고 있는 자들-곧, 주인이나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들-을 백성의 “은인”이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의 지배를 통해(비록 그들이 엄하고 무자비하게 권력을 행사할지라도) 사회의 무정부 상태로 향하려는 파괴적인 힘이 철저히 억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교회의 힘은 이런 식으로 행사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교회의 힘은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에 권위를 행사하시는 것을 가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교회는 (공권력의 엄중한 칼이 아니라) 선한 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신자의 연약함을 통해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능력에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

교회의 권세는 네 가지 면에서 세상의 권력과 다르다. 첫째, 교회의 권세는 오직 말씀의 지시를 받지만, 세상 권력은 시민법을 따른다. 둘째, 전자는 단지 훈계와 제재와 출교를 공포함으로써 교정하지만, 후자는 실제적이고 육체에까지 미치는 형벌을 가한다. 셋째, 출교를 포함한 모든 영적 교정은 죄인의 회개를 위한 것으로서 그 이상 진행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공권력의 형벌은 회개에 그치지 않으며, (회개하더라도) 죽을만한 죄를 지었으면 죄인의 사형까지 진행된다. 넷째, 공권력은 범죄 파악, 판결, 형벌 집행의 세 가지 단계를 밟는다. 교회는 앞서 말한 두 가지만 해당할 뿐, 형벌 집행은 하나님만이 하신다.

- 윌리엄 퍼킨스

### 3.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

출처: *God and the Civil Government* (Monticello, FL: Psalm 78 Ministries, 2020), 43-48.

저자: 존 칼빈 (1509-1564): 프랑스 신학자, 목사, 종교개혁기간 동안 중요한 리더; 프랑스 피카디 노용 출생.

역자: 김혜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 13:1).

권세에 관하여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고 기뻐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세의 지위에 매우 영광스런 직함을 부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강력히 추천하셨다. 몇 가지만 언급해 보겠다.

권세의 자리에 앉은 이들이 신이라고 불린다면, 아무도 그 직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그들이 신성한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임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은 나의 궤변이 아닌 그리스도의 해석이다. 주께서는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요 10:34-35)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그들의 직위가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뜻 외에 무슨 뜻이겠는가? 그분은 당신을 섬기도록 그들을 그들의 직위에 임명하셨고, 모세와 여호사밧이 유다 각 도시에 임명된 사사들에게 말한 것과 같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판결을 하도록 하셨다.

지혜는 솔로몬의 입으로 동일한 진리를 확증해준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잠 8:15-16). 이는 지상 최고 권력이 왕과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이유가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것을 선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와 거룩한 작정으로 그렇게 하신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법률 제정과 공정한 판결을 주관하신다.

바울은 또한 은혜의 척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배 된 성령의 은사들 중에 그리스도의 종들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갖는 다스리는 은사들을 열거할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친다(롬 12:8). 하지만 그는 초대교회에서 공개적인 권징을 담당하도록 지명된 지도자들의 공의회에 대하여 언급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 직분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부른다(고전 12:28). 바울은 정부의 권력 역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서 정의로운 모든 종류의 통치를 분명하게 권장하고 있다.

바울은 이 주제를 자세하게 논하며 더욱 뚜렷하게 말한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며,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롬 13:1-3).

여기에 우리는 다윗, 요시야 그리고 히스기야 같은 왕의 직분을 맡았던 성도들,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총리를 맡았던 성도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사사들과 같이 자유로운 백성들 가운데 다스리던 자들이었던 성도들의 예를 더할 수 있다. 주님은 그들의 기능을 분명히 승인하셨다. 그러므로 공권력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성하고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지위들 중 가장 신성하며 존귀한 권세임을 아무도 의심할 수 없다.

무정부 상태를 도입하기를 바라는 이들은, 비록 옛날에는 왕과 사사들이 무지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지배했으나, 오늘날 이 비굴한 방식의 통치는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함께 가져온 완벽함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면 반대할 것이다. 그들은 이러한 반대로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한 교만을 드러내는데, 이는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없는 완벽함을 자신들에게 돌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반박하는 것은 쉽다. 다윗이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라고 말하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는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지위를 버리고 사적인 삶으로 돌아가라고 권하지 않기 때문이다(시 2:10-12). 대신, 그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도록, 그들이 붙들고 있는 권세를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명한다.

마찬가지로,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오는 것에 관해 말하며 교회에 대하여 예언할 때,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사 49:23) 라고 말하며 통치자들에게 그들의 권위를 포기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대신,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자들을 돕는 후원자라는 영광스러운 직함을 준다. 나는 의도적으로 성경 전체(특히 시편)에서 모든 통치자들의 마땅한 권위를 주장하는 많은 구절들을 생략하겠다. 그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공적인 모임 가운데 왕을 위해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권할 때, 그 이유를 덧붙인 것이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2). 이 말씀에서, 그는 교회의 안전을 정부의 보호와 후견에 맡긴다.

이런 사실은 다스리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들의 의무 수행에 강력하고 바른 동기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그 사실은 그들의 수많은 무거운 직분의 어려움을 순조롭게 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위안을 줄 것이다.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사역자로 지목된 사실을 인지할 때 어찌 진실함과 신중함과 온순함과 자기절제와 순결에 열심을 품지 않겠는가? 그들의 판결 법정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을 알 때 어찌 감히 부정을 허락하겠는가? 그들의 입이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택하여진 도구라는 것을 알 때 어찌 감히 불의한 판결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손이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도록 정해진 것을 알 때 어찌 경건하지 못한 법령에 서명할 수 있겠는가?

요컨대,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신중함과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후견과 선함과 인자하심과 정의를 나타내고자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일을 속임으로 행하는 자’에게 저주가 내려진다면, 의로운 직분을 받고도 속임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더 무거운 저주가 부여될 것임을, 추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와 여호사밧이 그들의 재판관들에게 그들의 임무 이행을 촉구했을 때, 우리가 이미 언급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하는 다짐을 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 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대하 19:6-7. 참조: 신 1:16-18).

그리고 또 다른 구절은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시 82:1; 사 3:14)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의무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은 그들에게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행한 일들에 대하여 어느 날 하나님께 보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 훈계는 분명히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그들이 죄를 지으면,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법정을 더럽힘으로 주를 모욕하는 죄가 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그들이 세속적인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신으로 가장 신성한 직분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감탄스러운 위안을 얻게 된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이 모든 구절이 가르치는 교훈을 거부한다. 그들은 다스리는 이 거룩한 사역에 반대하는 발언을 하며 마치 권세의 직분을 기독교와 경건에 혐오스런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주의 종들이 수치를 당할 때 가장 분명하게 모욕 받으실 것이다. 이들은 위엄을 악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삼상 7:7).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권위를 거절했을 때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되었다면, 오늘 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를 대항하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그들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갖고 따질 것이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 큰 자는 작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눅 22:25-26). 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왕이나 총리가 되는 것을 금지하셨다고 해석한다! 이런 교활한 해석자들이라니!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는 논쟁이 일어났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헛된 야망을 억누르기 위하여, 그들의 사역은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른 권력자들을 이기고 최고가 되려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다. 주의 이 말씀이 왕권을 폄하하기 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 단지 정부의 직분이 사도의 직책과 다르다는 것만을 말할 뿐이다.

또한, 공직에는 여러 형태가 있으나, 우리는 그 직분들을 하나님의 규례로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차이가 없다. 바울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롬 13:1)라고 말할 때 그는 모든 권세를 포함하며, 모든 권세들 가운데 가장 작은 권세라도 가장 귀하게 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즉, 권세는 하나인 것이다. 한 사람이 다스리면,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복종한다. 이런 통치의 형태는 예전에는 영웅적이고 빼어난 사람들이 싫어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확증한다. “왕들이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것이다(잠 8:15). 우리도 또한 “왕을 존대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을 받았다(벧전 2:17).

-----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항하는 잔인하고 무지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교회는 기도와 눈물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이는 신자들이 세상의 사나움을 이기는 무기다. - 테오도르 베자

#### 4. 바람직한 정부 형태

출처: *When to Disobey*, Wake Forest, 2020, 13-27

저자: 피에르 비레(Pierre Viret, 1511-1571): 스위스 종교개혁자로 존 칼빈의 동료이자 로잔(Lausanne) 교회의 설교자였음. 스위스 오호브(Orbe) 출생.

역자: 김현준

하나님의 율법만이 모든 선하고 공의로운 정부가 통치를 받고 따라야 할 참된 기준이다. 사람들을 제대로 통치하려면 언제나 눈에 띄게 마련인 무거운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고자 한다. 또한, 이런 문제들의 원인들뿐만 아니라 이성과 권리와 공의로 그것들을 제지하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이러한 심각한 악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연합에 이르게 하는 진짜 방법들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이 방법은 인간 사회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 방법이 없다면, 사람들은 현세와 내세에서 비참과 불행으로 가장 두려워하며 지내는 것 외에 다른 수가 없다. 만일 이 방법이 잘 인지된다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가치를 두고 마땅히 귀하게 여기게 될 것이다.

이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 현자들 간에 다양한 권력과 정부 형태에 관해 크고 열띤 논쟁이 있었다는 점을 먼저 언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들은 이 문제에 여러 해결 방안들을 제시하였지만 그때마다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중한 문제들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확실한 해결안을 제시할 수 없었다. 이 문제를 논의했던 자들은 세 가지 유형으로 시민 정부와 공공 기관을 다루었다. 그들은 이 세 가지 유형을 각각 헬라어 이름을 따라 *군주제*, *귀족 정치*, *민주주의*로 명명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 격이 되어 사람들을 책임지는 정부와 권력 형태다. *군주제*라는 이름이 암시하듯이, 한 개인이 모든 사람에 대해 주권과 권력을 행사한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단일한 주권적인 왕이 있는 나라는 이 유형의 정부 형태로 굳어져 있다.

두 번째 유형은 *귀족 정치*다. 그 이름이 암시하듯 한 사람(이를테면 한 나라의 왕)에게 주권적인 통치가 주어지지 않는 권력과 정부를 말한다. 그렇다고 (민주주의처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권력이 이양되지도 않는다. 오히려 특정 사람들이나 상당한 숫자의 사람들, 이를테면 최고의 현자들이나 직무를 감당할 가장 탁월하고 적합한 사람들이 권력을 갖는다.

세 번째 유형은 (이미 언급한 두 가지 형태에서처럼) 주권적인 권력이 한 사람이나 특정수의 귀족에 부여되지 않는 권력과 정부 형태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모든 공동체가 권력을 갖고, 사람들은 공동 선출을 통해 정부를 맡을 사람들을 뽑는다. 하지만 최종 권력은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그런 조건에서 선출을 감행한다.

우리는 이 세 가지 형태를 한데 섞어 여러 다른 다양한 형태를 도출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결국 언제나 이 세 가지 형태로 요약될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이들 중 한 가지 유형만 취

하지 않고 각 유형에서 많은 적든 여러 면을 취택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이 유형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좋고 탁월하고 안전한지, 나라와 인간 사회의 존속을 위해 가장 적합한 형태가 무엇인지,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무엇인지 결정하기 전에 숙고해 볼 문제는 많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유형을 각각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어떤 면들을 결합하면 좋을지에 대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 특별히 황제나 왕이나 군주에게 아첨하려는 자들은 첫 번째 형태를 모든 사람에게 권할 것이다. 이들은 대뜸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예로 하나님을 언급하기도 한다. 곧,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지 왕이시오,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는 통치자이시므로, 모든 사람이 복종할 수 있는 특정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또 다른 이유는 군주제의 형태로는 다른 두 형태(특히 *민주주의*)처럼 변화를 피하거나 당파를 짓거나 책략, 선동과 반역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다양한 야망과 욕망 속에 존재하는 의견 불화와 반대 의견을 고려한다면 통치자들이 많을 때 불가피하게 선동과 반역 같은 일들이 많을 것이며 제한된 이성으로는 이런 일들을 막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가장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 유형의 단일 통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다른 유형의 정치 체제보다 더 쉽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인간 사회에서 징벌감이 되는 당쟁이나 혁명이나 반역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체제를 지지한다.

그 다음으로 귀족 정치를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선동과 반역을 쉽게 피할 수 없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 체제에서는 일반 민주주의 형태의 나라처럼 정부가 많은 사람의 수중에 있지 않다. 그들은 민주주의 형태에서는 한 개인이 주인 되기를 시도하고, 가장 반역적이고 혁명적이고 대담한 민중 선동가들이 권력을 차지하곤 하는 것을 안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대 역사가 충분히 입증하듯) 군주제는 오래지 않아 독재자 체제로 바뀌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 형태의 정치 체제를 가장 안전하고 모든 것 중에 가장 나은 것으로 선택한다. 이 체제는 군주제와 민주주의 사이에서 중간이득을 취하는 가장 간편하고 적절한 방식이다. 이 형태를 취하면 어느 한 편이나 다른 편으로 치우치는 일도 없다. 독재자 체제로 전락하거나 혁명이 일어나는 일이 쉽지 않다.

하지만 두 번째 형태에서도 큰 계략과 파벌이 종종 일어나고, 몇몇 사람이 아주 큰 거물들이 되어 굉장히 높은 지위에 올라 자신들의 동료들을 통제하는 것을 볼 때 많은 사람은 대중의 국가를 선호하게 된다. 그것이 이른바 세 번째 형태인, *민주주의*다. 그들이 이 체제를 선호하는 이유는, 주권이 더 많은 민중에게 있을 때 독재자가 될 위험은 적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몇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도 없다. 특별히 지위가 더 낮은 계층에게는 가장 힘 있는 무리가 주권적인 힘을 소유하게 되는 두 번째 형태보다 부자들에게 억압받을 위험도 훨씬 더 적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서로 상반되면서도 나름의 합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이 모든 다양한 의견에 대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죄 많은 인간들이 백성을 다스릴 때 그들이 어떤 형태의 정부 체제를 취하든 비참과 곤고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한 개인이 절대 권력의 수장이 되어 힘을 소유할 때 그는 지각이 있거나 어리석든지, 또는 현명하거나 바보 같든지, 또한 덕이 있거나 악할 것이다. 만일 그가 바보 같고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사악하기까지 하다면, 모든 국민과 전 나라가 그런 미친 우두머리만 의지할 때 얼마나 큰 위험이 따르겠는가? 이렇게 된다면 정부가 야생동물에게 넘겨진 것이나 다름없고, 정신없는 사람이 다른 미친 사람의 책임 아래 맡겨지는 것과 같을 것이다.

또한 통치자가 현명하고 덕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도 매우 심각한 위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첫 번째 위험은 그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 그와 정반대되는 인물이 계승하면 독재자가 되므로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다. 우선 그는 하나님 같은 불멸의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또한, 세상에서 선한 통치자의 임기는 종종 가장 짧게 끝나곤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런 자들을 더 빨리 데려가시기 때문인데, 이는 세상이 그들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은 선한 통치자를 데려가시는 것으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벌하시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위험은 설령 통치자가 전에 없던 가장 위대하고 의롭고 현명한 자이며 장수하는 자라 할지라도 고문들이나 측근들, 심지어 그가 가장 신임하는 가장 친한 동료들이 그를 속이려 들 때 그것에 빠지지 않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덕이 있어도 아무런 논의 없이 통치하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고문들이 선하거나 신뢰할 자들이 아니라면 통치자가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통치자가 현명하고 지혜롭고 경험이 있어도 종종 속지 않겠는가? 수많은 덫이 포진해 있는데 통치자가 홀로 그것들을 모두 피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치자의 고문들이 악하고 온통 아침꾼에 야심가에 탐욕스럽고 도둑이나 다름없으며, 방탕하고 (의회를 좌지우지하는) 폭군들이라면 통치자는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 그가 통치하더라도 그저 자신의 이름만 내걸 따름이다. 그렇게 되면 고문들은 *자신들이* 통치자가 되며 폭군으로 군림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을 내세우고 큰 이득을 취하기 위해 사냥꾼이 미끼를 사용하고 제사장들이 우상을 사용하듯 통치자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이미 언급했던 *민주주의*에도 위험이 있다. 민주주의가 손쉽게 한 사람이나 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잡는 독재 체제를 방지하는 수단이라 해도, 대다수가 가장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옳은 사람들인 경우가 흔치 않으므로 악한 자들을 극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오히려 완전히 정반대인 경우도 있다. 게다가 권력을 쥔 군중들이 더 많아질수록 가공할 위험은 더 증가하게 마련이다. 음모들이 더욱 난무할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들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여러 위험들 가운데 일반적으로 상당한 불행을 가져오는 두 가지 큰 악이 있는데 이로 인해 나라가 망하곤 한다. 그 첫 번째는, *행정관들의 선출*이고, 두 번째는 *법에 따른 판결과 법의 집행*이다. 공동체에 표결을 맡기게 되면 꼭 필요한 통치자들이나 행정관들을 세우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이는 주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첫 번째 이유는, 모

든 사람이 어떤 법에도 매이지 않고 자신의 세속적인 자유와 육체적 향락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욕망 때문에 투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을 존중하고 잘못된 행실을 형벌하는 통치자들보다는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통치자들과 행정관들을 세우려 한다(이러하기에 후보자들은 투표자들에게 헌신하게 되며, 투표자들은 비난이나 제약 없이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이유는 야망과 탐욕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자신들이 직접 관리가 되려고 하거나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관직에 세우려 한다. 그리고 이렇게 관직에 오르면 타락하기 마련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고 공공의 선이나 참된 정의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게 아니다. 단지 관직을 얻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려 하는 세속적인 명예욕이나 이득 추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듯 계략이나 그런 방법으로 관직과 지위를 낚아채서 성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이나 공공의 안녕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과 이득만 챙긴다. 이에 그들이 마땅히 행할 행정관의 의무 실행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므로 자신마저 다스릴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을까?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몰랐던 비참한 이교도였던) 아리스토텔레스조차 누구든지 사람을 통치자로 세운다는 것은 야생 짐승을 통치자로 세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제 지금껏 논의한 것을 토대로 하면, 우리는 그런 온전한 통치자들(특히 오래 장수하는 자들)을 찾을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질 수 없다. 설령 그런 자들을 찾을 수 있어도 여전히 다른 악이 상존한다. 곧, 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입법자들이나 행정관들이 있어도 백성들로 하여금 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오직 주권적인 법의 수여자이신 *하나님*만이 이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시민* 정부에 대해 말한 것들은 *가정*을 다스리는 것과 *내 자신*을 다스리는 것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친히 율법을 주셔서 통치자들과 백성들의 영과 이해와 의지와 욕망을 다스리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권적인 통치자요 주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요 또한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을 인정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통치자들과 백성들은 모두 어느 날 하나님의 장엄한 보좌 앞에서 각자 자신에 대해 회계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율법 안에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데 꼭 필요한 모든 도덕적인 가르침을 넣어 놓으셨다. 심지어 세상 모든 철학자의 책들의 윤리와 정치와 경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탁월하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입법자의 모든 법령보다 더 위대한 것을 율법 안에 넣으셨다. 그 탁월함과 위대함이 너무 깊어서 그 어떤 것도 율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새로운 것을 제시한 적이 없었고, 그 율법 안에서 그 어떤 그릇된 것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지 않으신다면, 어떤 왕이든 통치자든 백성이든 번영을 지속적

으로 누릴 것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에서 언급한 약속과 저주에 따라 다스림을 받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벽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에 따라 우리 자신을 다스려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율법의 효력이 발휘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데 적합한 통치자들, 행정관들, 목사들, 사역자들을 주신다. 그리고 그들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빚으시고 그들이 주께 순종하며 그들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베푸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실패와 필요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율법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은사들과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런 일이 선행된다면, 군주제든 귀족 정치든 민주주의든 그 기초를 하나님의 율법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간 사회 및 모든 나라에 잘 맞을 것이다.

-----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행 5:29).

## 5.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출처: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State?*, 1st ed., Vol. 19, The Crucial Questions Series (Orlando, FL; Sanford, FL: Reformation Trust; Ligonier Ministries, 2014), 3-9.

저자: R.C. 스프로울(1939-2017): 장로교 신학자, 가르치는 장로. 로그니어 미니스트리 설립자, 미국 피츠버그 출생.

역자: 아브라함 장

미국에서 우리는 ‘정교분리(政教分離)’라는 문구를 자주 접하게 되지만, 이 문구가 미국의 건국 문서에 등장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독립선언서, 헌법, 권리장전에서도 이 문구를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이 말은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의 건국 문서에 내포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한 말에서 비롯되었다. 그런데 아마도 오늘날의 미국 문화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절대적인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와 국가는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원칙’인 듯싶다.

**기독교 역사 초기부터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커다란 관심사였다.** 구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신정국가(神政國家)로서 기름부음을 받은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였다. 비록 교회와 국가는 제사장의 업무(교회)와 왕의 업무(국가)로 분명하게 구별되었지만, 이 두 기관은 매우 긴밀하게 통합되어 둘의 분리를 언급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신약 공동체가 설립된 이후,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고 그에 따라 세속 정부의 통치하에 있는 다양한 국가, 부족, 민족들에게 세력을 뻗치게 되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 제국, 고린도의 행정을 맡은 관리들, 또는 교회가 진출하는 지역의 현지 당국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교회는 수 세기에 걸쳐 사회 속에서 취해야 할 역할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해야 했는데, 특히 해당 사회가 아직 기독교 세계관을 공식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더욱 그러하였다.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정부는 여러 다양한 형태와 구조로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정부의 본질, 즉 근본 원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단어로 ‘*권세*’다. 정부는 권세를 가지지만, 그 권세는 그냥 아무런 권세가 아니다. 그것은 공식적이고 법적인 구조로 지탱되는 권세다. 정부는 시민들이 어떤 특정한 일들을 행하고, 또 어떤 다른 일들을 행하지 않도록 강제할 수 권리를 법적으로 부여 받은 조직이다.

몇 년 전, 나는 미국의 어느 유명한 상원의원과 점심 식사를 함께 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거 큰 논란 속에서 시작된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을 놓고 토론하고 있었는데, 그는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저는 어떤 정부라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강요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수프를 먹다가 거의 질식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의원님, 의원님은 어느 정부에게도 통치권이 없다 라고 말씀하

신 겁니다. 만약 당신이 정부로부터 합법적 권세를 박탈한다면, 정부의 기능은 단순히 어떤 제안들을 내놓는 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가 법을 제정하면, 그것이 무슨 법이든 그 정부가 그것들을 집행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정부의 원형은 하나님 당신의 통치와 권위에 기반한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와 더불어”(시 24:1).

**우리는 창조기사 안에서 하나의 정부 형태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창 1:28).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대신한, 모든 피조물에 대한 대리통치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해야 했다. 하나님은 땅에 대한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심으로 온갖 동물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도록 하셨다. 그것은 사람에게 대한 권세가 아니라, 땅과 이를 둘러싼 하늘과 바다, 그 안에서 움직이는 생물들, 그리고 신적 창조에 의해 존재하는 더 미세한 형태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아울러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금하셨다.** 그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다. 하나님은 만약 그들이 그분의 명령을 어긴다면 무슨 일이 뒤따르게 될지에 대한 경고를 덧붙이셨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창 2:17). 이는 그분의 권위로 형벌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의미였다. 아담과 하와가 그분의 통치를 거역하고 그분의 권위에 반항할 때, 그들은 즉각적으로 육체적 죽음이 아닌, 영적인 죽음을 당했다. 육체적 죽음은 나중에 미뤄졌으니 이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이 반역적인 피조물에게 내린 처벌 중 하나는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덴동산 입구에 두신 천사로부터 지상에 구현된 정부의 모습을 보게 된다. 불칼을 든 천사가 에덴동산의 입구를 지켰다. 불칼은 권세의 도구로 기능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한때 자신들이 살았었던 낙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았다.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다음 사안(事案)은 정부의 목적이다.** 교회 역사 초기,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정부는 필요악이라고 보았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를 구성하는 주체가 죄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구조가 무엇이든 간에 모든 정부는 타락한 인간성을 대표하게 된다. 인간의 정부는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요지는 이것이다. 정부 그 자체는 악하지만, 필요악이다.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이 세상의 악이 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억제 수단들 중 하나가 인간의 정부다. 이런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타락 이전에는 인간의 정부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 점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다. 세상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노동 분담을 관리하려면 정

부의 역할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그는 보았다.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 정부의 일차적인 목적이 악을 억제하는 것이라는 점에 분명하게 동의했다. 토마스 와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정부가 수립되어야 할 일차적인 목적은 인간의 악을 억제하고, 인간의 존재를 지키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정부의 첫 번째 임무는 악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이다.

정부가 수행하는 또 다른 역할은 인간의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거나, 남용하기도 하고, 파괴하는 등의 침해를 시도한다.

정부의 최종 역할은 합의를 조정하고, 계약을 유지하며, 공평한 저울과 저울추를 보장하는 일이다. 정부는 속임수와 사기의 부정의(不正義) 속에서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고기를 저울에 올려놓고 달면서 슬그머니 엄지손가락을 올리는 정육점 주인은 속임수로 물품 가격을 부풀려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다. 정부는 공평한 저울추와 측정법, 표준을 고안함으로써 이런 행위들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인류를 보호하시기 위해 정부를 만드셨지만, 그것은 단순히 인류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정부는 이 세상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것처럼 아름다운 동산으로 이끌려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 동산을 가꾸고, 개발하고, 경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그 세상을 착취하거나 남용하라고 하신 것이 아님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리하는 부섭정(副攝政)으로 인간을 부르신 형태 중 하나인 정부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과 창조 세계, 즉 인간뿐만이 아니라, 각종 동물과 인간의 삶의 공간인 생태 환경을 관리 및 규제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좋은 것이지만, 아무리 선의의 형태라 할지라도 정부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수반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미국인들은 자유의 나라에서 살고 있음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의미에서 옳은 것이다. 사실 어느 나라에 살든지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의 환경에서 살았던 적은 없다. 지금까지 입법기관에서 제정된 모든 법률은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한다. 만약 우리가 살인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계획적으로 죽이려는 범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입법 통과된 모든 법률이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한다. 어떤 자유는 살인의 자유처럼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법률을 통과시킬 때 우리는 대단히 신중해야 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고 있으며, 우리가 그 일을 경솔하게 처리할수록, 우리의 삶의 자유는 더 줄어든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국가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정부는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대두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

문제는, 말하자면 왕들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이 그런 왕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우리는 둘 중 어느 쪽(하나님 또는 왕)에 순종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성경에서

는 하나님은 당신의 고유한 권세로 통치하고, 왕들은 파생된 권세로 다스린다고 가르친다. 하나님의 권세는 스스로에게서 나오나 왕들의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하나님은 정당한 통치권을 가지시나 왕들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통치권은 아무런 한계가 없지만 왕들의 통치권은 제한된다.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나 왕들의 권세는 한계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곳으로 뻗어나가지만, 왕들의 나라는 일정한 국가의 경계 안에 머문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부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또한 왕들은 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아 직접 세우신 대리자들일 뿐이며,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따라서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고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 *폭군에 맞선 정당한 저항(Vindiciae Contra Tyrannos)*

## 6. 하나님과 정부와 권위

출처: *Baptists and the State* (Spout Spring, VA: Society for Biblical and Southern Studies, 2016), 41-49, 70.

저자: 론델 룸부르크(H.Rondel Rumburg, 대략 1943~): 침례교 목사, 남부 성경 연구회 회장  
역자: 조상철

모든 합법성은 주께서 정하신다. 사람은 스스로 권위를 부여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한한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권자로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권위를 위임 받을 뿐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권위)를 내게 주셨으니"(마 28:8)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일하게 합법적인 권위는 그리스도께서 위임한 권위다. 어떤 종류의 정부이든, 진정한 정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합법성은 참된 권위에 뿌리를 두고 있다.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모든 행위나 정부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그 권위를 발견한다. 조지 마스틴(George W. Marst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신 안에 공의의 원리들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비록 이 계시가 타락으로 손상되긴 했지만, 인간은 여전히 이러한 원리들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과 십계명 간의 유사성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비록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상태에 있더라도, 또한 이러한 원리들을 적용할 기본적인 동기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인간은 그 원리들에 의해 행동에 영향을 받고 제한을 받아왔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롬 1:18-2:15).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계시하신 것들이 있다. 그 계시들은 하나님 그분과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무들이다. 그러므로 이 책, 성경은 믿음과 실천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인간의 시금석이 된다."<sup>6)</sup>

국가정부(또는 시민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는 하나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가장 좋은 예를 역사상 인간의 삶 속에서 나타난 첫 번째 정부 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족 정부"였다. 교회와 국가는 가족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었다. 파머(B. M. Palmer)는 이러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성경은 가족이란 단순히 타고난 권리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즉시 위임을 받은 권위에 의해 부모가 통치하는 신성하게 구성된 국가라고 가르친다."<sup>7)</sup>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정부는 존속할 수 없다.

**이 주장의 증거:** 하나님이 국가정부를 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답: 하나

6) George W. Marston, *The Voice of Authority* (Phillipsburg, NJ: P&R Publishing, 1960), 54-55.

7) Benjamin Morgan Palmer (1818-1902), *The Family, in Its Civil and Churchly Aspects: An Essay, in Two Parts* (Richmond: New York: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A. D. F. Randolph & Co., 1876), 77.

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므로 어떤 형태의 통치도 하나님에 의해 작성되고 또 하나님에게 복종해야 한다.

-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시다.** 1689년 런던 신앙고백 (제24장 "국가 공직자에 관하여" 1절)에는 "전 세계의 최고 주님이자 왕이신 하나님이 국가 공직자를 임명하셨다"라고 기록한다. 이것은 침례교에서 하나님은 국가정부를 정하는 최고 권력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기록한 역사적인 진술이다.

로마서 13장 1-7절은 이 땅의 모든 정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최고 권위를 드러낸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롬13:1). 이 구절은 모든 정부들이 위임을 받은 권위 그러나 절대적이지 않은 권위를 가진다는 원리를 확립한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통치자이신 하나님만이 권세와 권위를 부여하시기 때문이다.

"역사는 유신론이 득세할 때 인간의 자유가 보장되는 반면, 무신론은 언제나 자연스럽게 전체주의로 향하는 추세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로마서가 작성된 당시, 국가(로마제국)에 의한 기독교인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추론들이 사도들에 의해서 도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로마 황제가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했을 때, 그들은 황제의 요구가 성경에 말하는 정당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sup>8)</sup>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쓸 때 정부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기독교 박해는 없었다. 그러나 박해가 일어나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 입장을 끝까지 지켰다. 그들의 순종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행 5:29). "로마서 1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권위들마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그들에게 순종해야 할 합당한 (비록 무조건은 아니지만) 책무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sup>9)</sup>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국가정부는 모든 인류의 도덕적 통치자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영적인 통치자로 세운 기관으로서 구속의 메시지와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신다. 국가법은 인간을 사람으로 다루지만 교회는 인간을 하나님 앞의 죄인으로 다룬다. 국가정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할 때, 그 정부 자체와 인간에게 문제와 위협이 된다(시편2). 존 화이트헤드(John W. Whitehead)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국가정부들이 하나님과 성경으로부터 분리되려고 할 때, 그들은 자칭 하나님이 되고 무법자가 된다. 히포의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적했듯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국가 통치자들은 강도의 무리들일 뿐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법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도 무법자이고 약탈자일 뿐이다."<sup>10)</sup>

8) Geoffrey B. Wilson, *Romans* (Edinburgh: Carlisle, PA: Banner of Truth Trust, 1977), 209.

9) James M. Boyce, *Two Cities, Two Lov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96), 180.

국가권력(공권력)은 인간들 사이의 단순한 "사회 계약"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 국가권력은 단지 인간들 사이의 합의일 뿐이라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다. 자연법의 인본주의 이론은 법과 국민의 일반적인 의지를 동일시하는 사회 계약을 통해 사회적인 관계들이 발생한다고 믿는다. 사회계약설은 로마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사회 계약에서, 개인은 자신의 판단, 권리, 능력을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맡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권력은 하나님이나 통치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합의에 있는 것으로 본다. 사회계약설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보지 않고, '백성'에게 있다고 본다. 로마서 13장 1절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성경은 하나님이 법에 따라 모든 권세를 정하신다고 선언한다. 사회계약설과 성경의 계시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둘 다 옳을 수는 없고 하나는 반드시 틀리다. 따라서 국가 권력에 대한 사회 계약 관점은 기독교에 큰 위험인데, 그 관점은 권위를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현 상태는 사회계약설의 처참한 본질을 보여준다.

존 로크(John Locke),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은 사회계약설 입장을 내세웠다. "국가주의"는 이러한 관점에 의해 조장되었고, 정치 체제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이 사람들의 철학에 따라 인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이 만물의 척도가 된다. 소위 루소의 "고귀한 야만인"이 권위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본주의가 이론 단순한 합의는 절대 합당한 권위를 가질 수 없다. "사회 계약"은 인본주의를 향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다. 현대 종교의 "개인주의"는 이러한 관점에 의해 조장되었다. 인간이 방종한(autonomous) 자세를 취할 때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손자이자 정통에서 있던 예일대 총장이었던 티모시 드와이트(Timothy Dwight, 1752-1817)는 존 로크의 사회 계약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드와이트는 모든 정부의 토대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고 썼다. 그런 다음 그는 존 로크가 그 믿음에서 이탈했다고 언급했다:

"이 학설은 인간들은 원래 정부가 없었으며, 절대적인 자연상태에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뭉쳐서 국가를 구성하고, 통치자를 세워 그들의 기능을 규정하고, 그들의 국가의 의무들을 지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가정한다. 이 학설은 인간들이 중대한 철학적인 속고를 통해 각 개인이 다수의 의지에 속박되기를 동의했으며, 제약을 위해 자신들의 어떠한 야만적인 행위들도 유쾌하게 포기하였다는 것을 가정하지만 사실 야만인들은 아무리 필요하고 유용한 제약이라도 단 하루도 용납할 수 없다. 이 학설은 또한 그러한 모임과 결정이 있기 전에는 인간이 어떠한 시민권, 의무, 책무도 없었다고 가정하고 또한 지금 그러한 사회 계약에 구속되기로 동의하지 않는 자들은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가정한다. 이는 이런 원칙을 주장하는 자들의 이해에 따르면 사회 계약만이 모든 인간의 시민권과 의무와 책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 학설의 부조리는 끝이 없다. 이미 언급했듯이, 정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다. 이 입장에 대한 증거는 완벽하다. 인간들이 동의를 하든 말든 하나님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또한 그들의 행복과 그 행복을 위한 모든 인간적인 수단, 즉 생명, 자유와 재산의 안전, 평화, 질서, 유용한 지식, 도덕 그리고 종교에 이르기까지 정부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의심의 여지

---

10) Whitehead, *The Second American Revolution* (Elgin, IL: David C. Cook, 1983), 150.

가 없다. 아니, 정부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필수적이다. 정부가 없는 나라는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생존 수단과 안락함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토양이 비옥하고 살기 좋은 기후를 가지고 있더라도 금방 아라비아 사막처럼 된다. 인간은 무정부 상태에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었던 적이 없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은 가장 단호하게 규정한다. 바울은 말씀한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다시 말해, 정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sup>11)</sup>

"사회 계약" 관점의 결과는 무법과 무정부상태이다. 그것은 무의미하게 끝나버리는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낸다.

"사회 계약은 가장 절대적인 전제(독재)정치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헌법주의 및 법치주의의 부정과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전형적인 예가 토마스 홉스(Hobbes)의 사례다. 그는 사회와 정부가 어떻게 동시에 탄생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대안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그 설명에 따르면, 모든 시민들은 가장 저항할 수 없는 불가분의 주권자 즉, 말하는 것이 곧 법이 되는 주권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도록 묶여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정부는 하나님과 공익을 위해 일한다. 정부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다! 여기서 공익은 대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다. 하나님은 정부를 정하셨다. 정부의 위치는 하나님 아래 있지만 국민을 대변한다. 국가정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공익이다.

---

11) Timothy Dwight, *Theology*, Vol. 3, 324, 326.

## 7. 시민으로서의 참된 순종과 종교적 억압

출처: *How Superior Powers Ought to Be Obeyed by Their Subjects*,  
modern edition by Patrick S. Poole from the 1558 edition.

저자: 크리스토퍼 굿맨(Christopher Goodman, 1521-1603): 영국청교도목사, 제네바 존낙스  
영국교회의 공동목사, 잉글랜드 체스터 출생.

역자: 정영진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 4:19).

마을, 도시, 그리고 왕국의 연합을 보존하는 것이나 참된 종교, 기독교 평화, 그리고 화합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참된 순종에 비할 만한 것은 없다. 모든 사람은 순종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예와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람은 사탄의 거짓 환상에 사로잡혀 순종과 불순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웃에게 해를 끼치게 되었다. 모든 판단과 본성적 감각을 잃은 사람들은 명백히 반대되는 것 중 그릇된 것을 옳은 것이라고 착각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세상은 사람들이 사탄의 거짓에 속은 그때부터 비참하게 훼손되고 억압되어 왔으며 오늘 날의 세상처럼 모든 무질서와 한탄스러운 혼란이 생겨났다.

교만과 허영과 심한 무지로 가득 찬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무오한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부패한 판단의 굵은 선으로 순종을 평가한다. 그는 그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신뢰할 수 있는 율법과 생명을 주는 계명보다 자신의 법령, 상상, 그리고 조례를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정의를 대신해 불의를, 옳음을 대신해서 그릇을, 덕을 대신하여 악덕을, 법 대신 의지를, 사랑 대신 증오를, 진리 대신 거짓을, 정직한 거래 대신 속임을, 종교 대신 미신을, 참된 예배 대신 가증한 우상숭배를 받아들인다. 간략히 말해서 그는 하나님 대신 사탄을, 그리스도 대신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오늘날 우리 눈으로 만천하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죄가 들어온 처음부터) 그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재앙 및 인간들 사이의 무질서의 재앙을 당한다.

가장 완전하고 모든 지혜와 하늘의 지식이 풍부한 피조물로 지음 받았던 아담은 에덴에 거주했다(창2:8). 그러나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과 경고보다 자신의 이성 순종했다(창2:15-17). 그리고 그는 지혜와 지식을 빼앗겼다. 그는 이전과 비교하여 매우 어리석게 되었다. 그리고 갑자기 순결과 영생과 같은 모든 다른 특별한 은사들을 잃었다. 그는 주님의 음성을 두려워했다. 자신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부여되고 후손에게도 부여된 하나님의 무서운 노와 저주를 느꼈다.

신실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온 세상은 자기들 멋대로 행하며 너무 부패하게 되면서 살아 계신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았고 의로운 노아의 경건한 훈계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 사람은 지독한 정욕에 빠져들었고, 백이십년의 기간마저 그들이 회개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창 6-7). 그러므로 그들은 예상치 못하게 가장 공의롭게 즉시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 당시 그 악한 세대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모든 종류의 사악함이 가득하여 땅이 지옥처럼 여겨질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엄에 대한 그 모든 반역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율례보다 그들의 부패한 이성을 따른 것이 그 뿌리가 아니겠는가?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법과 교훈을 받았고, 노아에게서도 들었고, 심지어 그 법과 교훈은 그들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새겨져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명하지만(롬 1:24-32) 과거의 모든 시대부터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도 자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를 오히려 가장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자가 가장 눈먼 자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자는 자신의 순종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으로 판단하기보다 자기 자신의 부패한 성향에 이끌려 판단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판단이 이방인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바꾸며 사도가 증거하는 참된 예배를 부끄러운 우상 숭배로 만들어 버렸다(롬 1:25).

이런 판단은 사람이 만든 전통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였고 유대인들을 위선과 거짓 거룩으로 옷 입혔다(마15:1-20). 인간의 악취가 나는 머리로부터 너무나 다양한 의견과 위험한 이단들이 쏟아져 나와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스도는 온갖 치명적인 독을 그의 더러운 잔에 가득 채웠고, 그것으로 온 땅과 그 왕들과 방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할 뿐 아니라 그 독에 취하여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이에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대항하여 무장했다(시편2편). 그들은 위선된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잔인하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박해한다. 그들은 더러운 짐승의 깃발아래에서 분노한 남자처럼 싸운다. 그러나 순종과 질서가 전혀 없이 오직 분노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자연의 법을 파괴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수호자, 참 종교의 수호자, 평화의 창시자, 순종의 교사, 그리고 국가에서 그리고 정치에 있어서 가장 분별력 있는 통치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므로 온 천하를 모욕하는 이 유력한 사람들의 본래 모습과 그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선한 일이다. 이에 나는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에서 참된 순종, 즉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인간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것을 말하게 되었다. 나는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행하는, 위선 및 교활한 순종을 드러낼 것이다. 그들은 오직 그들의 야망, 명예,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순종이라는 기분 좋은 이름을 사용한다. 우리는 이러한 위선을 드러냄으로 과거에 우리도 사람의 뜻에 굴복하고 사람의 경건치 않은 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던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밝고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되면서 이전의 무지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성실하게 바로잡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더 확실한 분별력을 갖추기 위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을 부지런히 숙고하자. 누구에게,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먼저 살펴보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께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행:4:19). 이 두 사도는 제사장들과 성전 총독과 사두개인들로 인해 전날 밤 옥에 갇혔다(행4:14). 이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행각에서 백성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에서의 부활을 전하였기 때문이었다. 이튿날 그들은 예루살렘의 원로원 전체와 공의회에 서게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수석 관원들과 장로들 곧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다

른 대주교들이 사도들을 심문했다. 누구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불구자를 고쳤는가? 그 불구자는 40세가 넘은 사람이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절뚝발이가 되어 매일 솔로몬의 성전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그 기적을 행했다고 담대하게 대답했다. 유대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온 공의회가 입을 다물었고, 대적할 말이 없었다. 사람들은 놀랐고,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변함없이 담대하게 대답한 것을 이상히 여겼다.

사도 누가는 전체 공의회, 즉 앞서 언급된 이 모든 행정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어느 누구에게도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설교하지 말라고 엄격히 명령했다고 기록한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복음의 진행을 막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방해했고, 그리스도를 범죄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이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사도들에게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위협적인 권위와 형벌을 통하여 사도들을 잠잠케 하고 마침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교활하게 생각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바리새인들의 후계자인 교황들은 명백히 복음의 적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맹세한 군인들이다. 그들은 자명한 성경 말씀에 압도되고 그들의 신성모독적인 입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다물어졌지만, 그들은 악의를 품고 그리스도에 대항한다. 그들은 권력, 권위, 위협, 무서운 형벌, 잔인한 살인을 수단으로 하여 그렇게 한다. 그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옛 뱀에 속하여 그를 닮아있다(요8:15).

공의회 회원들은 하나님의 충실한 종들을 대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간교하게 의논하며 계획하였지만 실패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욱 빛났기 때문이다. 그분의 복음의 진리는 더 알려졌고 더 많이 전파되었다. 그들의 거짓과 맹렬한 광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남으로 경건한 자들은 그들을 혐오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얼마나 큰 광기인가! 그들은 사도가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전능하신 이의 권능을 대적하고 이길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롬1:16). 사람의 위협이 하나님의 위협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위한 그의 무서운 심판보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 더 우세하다고 생각하다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교리를 파괴할 수 없었다. 그러면 서도 그들은 주께서 그의 강력한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불멸의 존재가 되셨는데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다니! 예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을 때 그들이 아무리 무덤을 철저히 지켰어도 주를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없었으면서도 아버지의 우편에서 영원한 영광 중에 앉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오 헛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예수님은 이미 온 세상을 이기셨다!

주님은 온 세상의 군주와 통치자로 있던 사탄을 내쫓으셨다. 이제 사탄은 주의 진리와 주의 종들을 더 이상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너희는 너희가 주와 선생으로 섬겼던 사탄보다 더 교활하고 강하냐? 강한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로 서 계신데, 너희 사탄의 군사들이 승리를 얻으려고 생각하느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그리스도를 붙들 수 없었다! 지옥의 권세도 그분을 이길 수 없었다. 그래도 당신은 자기주장대로 주의 영광을 가리는 악의적이고 배신적인 싸움을 할 것인가? 가련하고 비열한 자들이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신의 죄는 배가 된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위협으로 주님의 가장 좋은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려고 악의적으로 노력한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맹렬한 질투를 다음과 같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23:13).

-----

전쟁이 나면... 나는 살인과 피에 굶주린 교황에게 대항하여 자신들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누구도 그들을 선동자들이라고 꾸짖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동을 받아들이고 자기 방어로 인정할 것이다. 나는 이 문제를 율법과 법학자에게 넘길 것이다. 살인자들과 피에 목마른 자들이 전쟁을 하고 살인을 할 때, 그들에 대항하여 일어나 자신을 방어하는 것은 반란이 아니다. -마르틴 루터

## 8. 하급 집행관의 의무

출처: *The Doctrine of the Lesser Magistrates* (North Charleston, SC: CreateSpace, 2013), 15-19.

저자: 매튜 트레웰라(Matthew J. Trehella, 1960- ); 개신교도 작가, 생명권 옹호자, 미국 위스콘신, 리치필드 소재 머시시트교회 담임목사.

역자: 아브라함 장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의 입에 가장 드물게 오르내리는 말이 의무(義務)란 단어다. 편의주의가 지배한다. 우리 시대에 사적 또는 공적 영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저항이 필요 없는 길을 택해 걷는다. 헌신(獻身)은 미국인들에게서 오래 전에 사라진 미덕이다. 이것을 믿지 못하겠으면 그냥 이혼율을 생각해 보라.

의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 또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자연적, 도덕적, 법적 책임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무는 어떤 사람의 지위, 또는 도덕적, 법률적 견지에서 요구되는 행동이다.

집정관은 행정, 입법, 사법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가진 자이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하급 집행관은 고위 집행관에 비해 적은 권한을 가진 자이다. 예를 들자면, 한 카운티의 행정을 맡은 집행관은 주지사보다 그 가진 권한이 적다. 하급 집행관의 자리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거나 임명됨으로 말할 수 있다.

하급 집행관에 관한 교리에 따르면 하급 집행관에게 주어진 의무는 기본적으로 3가지다. 첫째, 그들은 율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더 높은 위치의 권세자들이 내리는 어떠한 법률이나 칙령에 저항하고 맞서야 한다. 둘째, 그들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인격, 자유, 재산을 더 높은 위치의 권세자들이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나 부도덕한 법률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셋째, 헌법을 위반하는, 더 높은 위치의 권세자들이 만든 법률이나 법령을 시행해서는 안 되며, 필요하다면 그것들에 맞서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그저 나는 내 일을 할 뿐이야!" 라거나, "나는 단지 현지의 법을 준수할 따름이야!" 라는 등의 변명 뒤에 숨을 수 없다. 하급 집행관의 의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지키고, 자신의 권한이나 기능이 미치는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이다. 이것은 **신성한 의무**이다. 그 의무를 신성한 것이라고 정의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급* 집행관이라고 표현할 때는 보통 어떤 특정 지역에 한정된 권한을 의도하는 것이다. 지방 권력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미치는 관할권은 부당하거나 비도덕적인

법령을 입법하는, 더 높은 위치의 권세자들보다 작다. 대통령이나 연방 의회, 대법원에 대항하는 주지사나 주 의회, 혹은 주지사나 연방 의회, 주 의회에 맞서는 시장이나 시 의회 등, 그게 무엇이든지, 이런 하급 집행관의 권한은 더 높은 지위의 통치자에 비해 특정 지역에 한정된다.

하급 집행관들은 고위 권세자들의 명령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원래 주 정부는, 오늘날도 그러하듯이, 연방 정부의 규정이나 법률, 정책 등을 단순히 전달하거나 수행하는 거점들로서 의도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

허버트 솔로스베르크(Herbert Schlossberg)는 그의 대작, 『파멸의 우상들』 (*Idols for Destruction*)에서 이 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급 집행관들에 관하여 그는 이렇게 말한다. “미국 헌법의 제정자들은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에서 나타나기 쉬운 월권 현상들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그들의 해결책은 권한의 다층적 구조를 고안하는 것이었다. 주와 시, 카운티와 타운십, 그리고 독립적인 조세당국의 존재는 국가 옹호론자들에게는 중앙집권적 권력에 손상을 가하는 골치 아픈 것들이었지만, 여러 사람들이 당했었던 자유를 짓밟는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었다.”

한편 솔로스베르크는 중간 단계에 있는 이런 기관들이 전에는 중앙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sup>12)</sup> 이후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는다. “한 세기의 ¾이 지난 후 신국민주의는 쓴 열매를 맺고 말았다. 행정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권리를 경멸해 온 사람들은 그것들을 연방 통치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지방 정치인들은 지방의 강탈 행위를 묵인했는데,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권한을 포기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기 때문이다.”<sup>13)</sup>

다시 말하면, 돈과 함께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연방 통치자가 하급 행정관들을 매수하여 그들이 시민들의 명령보다는 연방 통치자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손을 쓴 것이다. 따라서 하급 기관들은 단순히 연방 정책을 집행하는 거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오늘날 미국의 하급 행정관들은 부당하거나 부도덕한 법률을 지지하거나 따르는 행정관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고위 권세자들의 반란에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솔즈베리(John of Salisbury, 1115-1180)는 자신의 책 『정치가론』 (*Policraticus*)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한다. “충성스런 하급 집행관들은 통치자의 권력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분의 규례를 따르는 선상에서 행사되는 경우에만 그런 통치

---

12) Schlossberg, *Idols*, 212.

13) Schlossberg, *Idols*, 214.

자의 권력을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하고 저항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항한 전쟁에 가담하도록 한다면, 나는 *이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시 되어야만 한다* 라고 거리낌 없는 목소리로 반론을 제기한다.”<sup>14)</sup>

하급 행정관들이 주도하는 저항은 현명하고 적절하다. 농민 반란은 정부에 의해 쉽게 진압된다. 그들은 조직된 중앙 권력에 의한 폭정에 성공적으로 저항하는 데 필요한 응집력과 질서가 부족하다. 아래에 열거된 항목들은 왜 하급 행정관들의 저항이 현명한 것이며, 고위 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폭정을 되돌리는 데 필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1) 하급 행정관들에게는 이미 자신들이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주어져 있다.

2) 하급 행정관들은 자신들의 공직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지지를 받았다. 따라서 그들은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확고한 권력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셈이다.

3) 대개 하급 행정관들은 헌법상의 판례와 법의 지지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주장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산이나 역사가 존재한다.

4) 하급 행정관들은 공적 토론의 장에 들어가 관련된 불만이나 고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접근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

5) 하급 행정관들은 시민들이 자기들의 나라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폭정을 목격하고, 거기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을 발견하면서 느끼는 양심의 고통과 의문, 망설임 등을 자신들의 직위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사람들은 존경할 만하고, 권위가 있는 지도력에 반응하기 때문에 부당하고 부도덕한 법에 저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하급 행정관의 권위를 인정하고 힘을 모아 그들을 지지하게 된다.

6) 하급 행정관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고통 받는 자들에게 구호와 대피소,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등, 자신들의 직위를 활용하여 고통 당하는 자들을 위한 일시적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제도화된 구원인 셈이다.

7) 하급 행정관들은 압제자들이 그들의 공적 지위에 대해 공격을 가하고, 더욱 심한 부정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그런 압제자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 넣고, 그들을 공개적인 자리로 내몰아 그들이 행한 악한 짓들을 폭로할 수 있다.

8) 하급 행정관들은 격변이나 유혈사태 없이 부정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폭압적인 정부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세력이 *하급 행정관들의 적절한 지도력과 명령으로* 지지를 받고 있음을 안다면 억압하는 일에 안달을 덜 부리게 된다. 하급 행정관들이 부당하고 비도덕적 법률을 거부하며 따르지 않을 때, 종종 그런 문제들은 무장혁명이나 유혈사태 없이도 옳은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다.

---

14) Salisbury, *Policraticus*, 258.

9)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들의 직위에 있으면서 합당한 역량을 발휘하는 하급 행정관들을 기꺼이 지지하실 뜻이 있음을 선언하신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반적인 문화와 일반 시민들을 위한 참된 정의, 그리고 악과 압제의 공격에 맞서는, 적절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구원의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폭정에 대비하는 방어벽으로서 헌법적 보호 및 적절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의 정의롭고 올바른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하급 행정관들은 자신들의 업무를 잘 감당함으로써 *합법적* 권위를 구성한다. 하급 행정관이 상급자가 만든 부당하거나 부도덕한 법률에 맞서 저항할 때, 그런 행동이 자신의 관할권 아래에 있는 시민들은 물론 나아가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

간단히 요약하면,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권세자가 부당하거나 부도덕하게 행동하고, 이로 인하여 권력 남용이 제지되어야 할 필요가 대두될 때, 하급 행정관들은 질서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우리는 또한 다스리는 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경의를 표해야 한다. 전자는 우리의 의무이며, 후자는 그들의 책무이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고 말한다(딤후전 2:1-2). 그들의 어깨 위에 놓인 짐은 무거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버틸 힘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 무거운 짐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사람들이 왕관의 무게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을 들어 올리려고 몸을 굽히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도 진리가 담겨 있다. - 조지 스윈록(*George Swinnock*)

## 9. 황제에게 호소함

출처: 마그데부르크 신앙고백(*The Magdeburg Confession (1550)*, Matthew Colvin, trans. (N. Charleston, SC: CreateSpace Publishing, 2012), 49-53.

저자: 마르틴 루터의 친구이자 지지자였던 니콜라스 폰 암스도르프(Nicholas von Amsdorf, 1483-1565) 및 그를 중심으로 한 루터교 목사들

역자: 스테반 황

\* 마그데부르크 신앙고백(1550)은 개혁주의의 정치 이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서 중 하나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집정관이신 신성 로마 제국의 찰스 5세 황제가 자신의 국가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교의 선생들과 청중들을 왜 교황(바오로 3세, 1468-1549)에 대항하여 보호해야 하는지를 변론을 통해 입증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집정관인 황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참된 교리와 참된 경배를 거부하고 우상숭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교황을 강제로 쫓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장 자비로운 영주이신 찰스 황제를 증인으로 불러 교황이 당신의 위엄과 권력을 남용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허락하지 않기를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가장 변영된 왕국을 주셨는데 지금 그리스도는 그 왕국 안에서 당신의 손님이 되고, 가련하고, 거절당하고 있으며, 그의 지체들, 즉 그의 제자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맡겨진 영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당신이 충실하기를 간청합니다. 우리는 왕국 및 영광의 어떤 부분이 주께 되돌려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벌로부터의 방어와 자유를 허락해 주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당신이 이러한 선물을 신실하게 다룸으로 영생의 더 큰 선물로 갚아 주시기를 구합니다.

만일 뭔가 마음에 걸려서 아직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생각할 수 없다면, 경건함으로 다음을 생각해 보기를 간청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중 대제사장들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도록 넘겨졌을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지지 아니하시고 휘방하는 자요 선동하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과 다른 순교자들은 일반 권력자들에 의해 항상 그렇게 간주되고 살해되었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요한복음 16장에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요 16:2).

이 말씀에서 주께서는 거짓 교회의 표식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무기로 거짓 종교를 전파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된 교회는 아무리 참된 경건이라도 무기를 사용하여 강요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도 당신의 법에 순종하는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이 그들 자신의 종교를 따르도록 허용합니다. 당신은 무기로 그들에게 당신의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루터교 신자들은 이교도들보다 더 가련하고 불행합니다. 왜 우리는 당신의 이런

친절을 누리지 못하고 빼앗겼습니까?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한 입과 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속주이자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조항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나뉘게 된 것은 오직 다음 사항 때문입니다. 즉, 당신은 교황 측에 설득당한 상태에 있지만 우리는 칭의에 있어서 공로와 영광을 그리스도께만 돌립니다. 우리는 오직 그분이 그분 자신의 말씀에 따라 경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분도 더 많은 방법으로 경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전통에 따라 그분을 경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상속자인 당신에게 당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대에서 설명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할지를 고려해 보기를 간청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 받을 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 그리스도인들이 과도하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한 자로 드러난다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당신의 통치와 관련된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기꺼이 복종할 것이며, 마땅히 그리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이 부분에서 철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고백에 따라 당신을 존중하고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에 따라 당신을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가르치며 또한 당신의 칼에 대한 분노나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하듯 당신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칩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이 교리를 똑같이 준수한다고 생각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신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사역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 하리라”(사 55:11)는 것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전 15:58)는 주의 약속입니다. 즉, 우리는 만일 당신으로 인하여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우리 교회로부터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마땅히 정직한 의무로 당신에게 참 사랑에서 나오는 순종과 거짓 없는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보호를 받음으로 인한 사랑뿐만 아니라 당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가장 순종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은 당신에게 순종한다는 자들의 말을 듣고 우리를 불복종과 반역죄로 지목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각 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도시의 일반적인 태도와 의지에 대해 분명히 단언하는데 그들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자유가 얻어지면 우리 상원과 시민들은 폐하의 법에 따라 모든 의무에 가장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제국 관리들의 태도와 의지가 우리에게 전혀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교회 전체가 시작한 일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당신을 파문할 것이며, 또한 우리의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이 도시를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황제의 종교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렇게 명하십니다(마 22:17-21). 우리는 하나님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정부의 관리들이 나름대로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나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과 국가에 순종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규정된 범위에서 교회와 국가 중 어느 한 쪽이 벗어날 때는 끔찍한 죄와 극심한 불안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찰스 황제여! 이 부분에서 당신은 당신의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영역까지 당신의 통치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소동을 일으킨 주범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상속자인 폐하께 우리가 당신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의 가장 공정하고 엄중한 최종 판단에 따라 결국 당신과 우리의 주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는 일로 우리와 다른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구속하고 박해하는 것을 멈추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통해, 고위 집정관들이 지금처럼 벌써 그들의 법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교황 송배를 시민들에게 강요함으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과 참된 예배를 무너뜨리려는 이 때에, 또한 그러면서도 아닌 것처럼 위선을 나타내고 있는 이 때에, 경건한 집정관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에게 최대한 저항하면서 참된 교리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생명과 질서와 백성의 재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그러한 거대한 폭정에 맞서 마땅히 백성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10. 귀족들과 통치자들에게 호소함

출처: “The Appellation” in *The Works of John Knox*, Vol.4 (Edinburgh; J. Thin, 1854), 467-472; updated by Kevin Reed, Copyright © 1995.

저자: 존 녹스(John Knox, 1514-1572): 스코틀랜드 목사, 신학자, 종교 개혁가, 영국 스코틀랜드 이스트로디언 해딩턴에서 출생

역자: 박기철

존 녹스는 의로운 심판의 영을 지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스코틀랜드의 귀족들과 통치자들에게 있길 원한다.

지금 이 순간 내게 가해진 박해를 여러분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로서의 이생에 대한 사랑뿐 아니라,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나를 동요시킬 수 없다. 하나님에 의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합당한 권력으로 나를 그 박해로부터 구원하도록 간절히 청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간청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에 빛지고 있는 모든 사람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곳에서 학대받고 있는 내 형제들의 구원 및 당신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는 나의 사랑으로부터 일부 비롯되었다.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셔서 내 마음의 눈을 밝히실 뿐만 아니라 나의 둔한 마음을 어루만지심으로 천하 사람 중에 홀로 예수라는 이름 외에 구원을 주시는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것을 나로 하여금 분명히 보게 하시고, 그의 은혜를 통해 진심으로 그 이름을 믿게 하시길 기뻐하셨다(행 4:12). 예수께서는 그가 십자가에서 드린 한 번의 희생제사로 인해 약속된 나라를 물려받을 사람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히 10:12-13). 또한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베푸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비참한 나를 복음의 증인, 목사, 설교자로 만드시고 임명하기를 기뻐하셨다. 1556년에 스코틀랜드에서 나는 형제들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청지기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임하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고전 3장). 하나님께서는 주인을 두려운 척하여 헛된 변명으로 달란트를 땅에 파묻었던 청지기를 인정하지 않으신다(마 25장). 그러므로 나는 그들과 교제하는 동안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섬기신 것처럼 진실하고 신실하게(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 죄를 미워하라고 가르치면서 구원의 말씀을 나누었다. 그 구원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추악하여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 외에 아무도 그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희생제물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광의 실체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주사 십자가에서의 수치스럽고 잔인한 죽으심을 통해 선택하신 자녀들을 자신과 화목시키셨고, 이를 통해 자신의 위대한 자비를 드러내셨다는 것이다(요 3:16~17, 롬 5, 8, 고후 5:18-19). 게다가 나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가로 이전의 죄악이 제거되었다고 믿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르쳤다. 즉,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육체의 정욕과 맞서 싸우며 선행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분투해야 함을 가르쳤다(롬 6장, 엡 4-5장, 2:10). 나는 이 교리 안에 나타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누구든지 이 패역한 세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거나 부끄러워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그를 부인하고, 그가 권능으로 나타나실 때에 그들을 부끄러워할 것을 확실히 확인했다(마 10:33). 그러므로 나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위해 모든 미신과 헛된 종교와 우상을 피해야함을 단언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는 헛된 종교와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없이 시행되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섬김과 숭배다. 내가 믿는 이 교리는 성경과 너무 일치하여 이 교리의 어떤 점이나 부분에 대해서 악담할 정도로 뻔뻔한 자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주교들과 불경건한 성직자들이 나를 이교도라 저주하고 이 교리에 대해 이단이라 하여 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내 초상화를 불태워 이를 입증했다. 이에 나도 존경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 그 거짓되고 잔인한 선고와 사악한 세대의 모든 판결에 대해 가장 오래된 법과 규범들에서도 허락한 의로운 평의회에 호소하는 바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백성의 통치자로 세우셔서 당신들의 통치하에 있는 무고한 사람들의 변호를 당신들의 손에 요구하시므로 나는 가장 겸손히 존경하는 여러분들에게 요청한다. 이와 동시에 종교에 대한 논쟁이 합법적으로 결정될 때까지 당신들은 그 잔인한 짐승들에 의한 부당한 박해로부터 나와 동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도록 호소한다.

존경하는 여러분들도 나 홀로 이러한 이유로 사악한 로마가톨릭 세대에 대항하고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여러 도시들과 개혁 교회들은 적그리스도의 폭정에 대해 호소하며, 신앙에 대한 모든 논쟁에 관해 하나님의 가장 신성한 말씀의 권위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진지한 평의회를 요구한다. 그리고 내가 말한 것에 여러분들에게 보다 엄숙한 의례와 격식으로 만들어진 것보다 더 가치있고 영향력을 지닌 나의 단순하고 명백한 호소를 들어줄 것을 요구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 부여된 권력을 지닌 당신이 폭군의 분노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요청하며, 내가 어떤 부정, 오류 및 거짓된 의견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고소당하거나 모독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고대 법률 및 가장 경건한 의회의 결정과 같은 공정함에 의해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기를 요청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에 합당한 죄인에 대해 반드시 두세 명 이상의 증인에 의해 유죄가 입증된 경우가 아니면 아무도 죽이지 말라고 하셨다(신 17:6-7). 고대 법률은 그들의 범죄가 끔찍하지 않는 한 고소당한 자에 대한 정당한 변호를 허용한다. 그리고 경건한 평의회는 어떤 범죄로 기소된 주교나 평신도가 재판과 자문 또는 평의회에 앉도록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 자리는 그들을 고발한 자들의 소송을 재판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존경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대적들이 이단이라고 저주하는 이 교리를 간단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승인하길 요청한다. 이는 성가신 적그리스도 세력과 의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벽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우리의 고소는 어느 한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과 주의 주요 사도들이 주의 교회에 세운 그리스도 예수의 율례에 반하는 권력을 지닌 왕국 전체에 대한 것이기에 그 왕국에 속한 그들이 우리의 소명(疏明)을 재판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 우리는 교황의 왕국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고 적그리스도의 권세라는 것을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존경하는 귀족과 통치자들이여, 나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당신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심사하기를 요청한다. 그리고 왕국의 통치자인 당신들의 권한으로 주교들을 불러 그들의 잔인한 살인행위에 대해 그만두게 할 뿐만 아니라 불법의 사람, 즉 로마 적그리스도의 저주스러운 죄와 불경건을 알아내고 폭로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을 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또한 당신은 그들에게 양떼들을 보살피지 않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강요할 것을 요청한다.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설교자들이 가톨릭 교회의 형벌과 판결로부터 현세의 지식 있는 통치자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매우 합당하다고 여긴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목사들의 고소를 경청하고 또한 폭정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의무가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 11. 국가와 자유

출처: *Government and Liberty Described, and Ecclesiastical Tyranny Exposed*  
(Boston, MA: Powars and Willis; Phillip Freeman, 1778), 3-7.

저자: 아이작 백커스(Isaac Backus, 1724-1806): 미국 독립 전쟁 당시 침례교 목사, 미국 코네티컷주 안택에서 출생

역자: 박기철

지금 세계에서 국가와 자유의 문제가 가장 큰 논쟁거리인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명확해야 하며 이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국가와 자유에 대한 진실한 특징에 대해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친숙한 은유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해보겠다. 아모스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라고 말한다.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와 공의는 자유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 꽤 자유롭다고 표현할 때, 우리는 “그것은 물처럼 자유롭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흐르는 자비와 은혜뿐만 아니라 그 흐름의 결과로 인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흔히 진리의 말씀에서 비유되곤 한다(요 4:14, 딤후 2:11-12, 딤후 3:5-8).

**둘째, 자유는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은 물 없는 구름과 같다. “바람에 불려가는” 또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유 1:12-13). 자유의 진정한 아들들은 시내와 같아서 맑고 일정한 수로를 따라 흘러내려간다.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시 119:32),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시 119:45)라고 말한다. 시내와 강은 일정한 수로가 있어야 흐를 수 있다. 그러나 국가를 무시하며 자유를 약속하는 자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와 같다”(벧후 2:10-19).

**셋째, 비록 폭정과 방종은 종종 큰 소요를 일으키지만, 국가와 자유는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다.** 전자는 격노한 파도와 같아 바위에 충돌하고 해안에서 사라진다. 또한 폭정과 방종은 폭풍우와 같아서 비참한 황폐와 재난을 가져온 후에는 그 힘이 사라지고 끝나버린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에는 힘찬 시내와 같아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이기고 통과할 때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

**넷째, 시내와 강물은 매우 유용한 생수를 끊임없이 제공함으로써 가는 곳마다 축복을 가져다준다.** 마찬가지로 재판의 시행과 진행에 있어서 공정한 시행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가져다준다.

**다섯째, 천국의 명령은 “시내와 강물로 아래로 흐르게 하라. 강물의 흐름을 막지 말라”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의 자유로운 흐름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제거해야 한다.

여섯째, 말씀의 배경이 명백히 보여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큰 축복에 대한 주요 장애물은 신앙에 의해 통치되는 대신 권력에 의해 종교가 통치되는 것을 당연시한 것이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순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규례와 예배의 절차의 위대한 목적은 우리가 죄 사함과 씻김을 받음과 함께 우리의 이웃에게 의를 행하도록 가르치고 돕는 것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신적 규례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고, 그 변형된 규례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로운 행위를 멀리하였고 자신들의 적합지 않은 행위를 숨겼다. 그들은 정의를 쓴 쪽으로 바꾸며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자신들이 매우 신앙 좋은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바랐다(암 5:7,10). 이러한 일들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고(고전 10:11),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경우에,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리사욕과 자기자랑은 눈 먼 자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므로 그 속임수를 막기 위해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코네티컷 주의 집권당에서 최근에 발표된 두 편의 출판물을 살펴보는 것은 특별한 유익이 될 것이다.

11년 전 성공회 성직자들은 미국에 주교들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 매우 진지한 것처럼 보였다. 이 주제에 대해 찬들러 박사(Dr. Chandeler)가 책을 출판하였고 이에 대해 보스턴의 촌시 박사(Dr. Chauncy)가 답변을 썼다. 찬들러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들을 손상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으며, 단지 교회를 완벽하게 조직화하려는 것뿐이라고 선언했다.

찬들러의 요청이 왜 인정 되서는 안 되는 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로 촌시는 다음을 제시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종교 내에 모든 공공기관의 설립을 반대한다. 하나님께서 국가에 종교 기관을 세울 권리를 위임한 것 같지는 않다. 영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천국의 어떤 특별한 인정을 받는 구별된 국가인가? 그러하다면 영국은 국가가 종교 기관을 세울 수 있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모든 나라는 공통적으로 종교에 있어서 자신들만의 정서에 부합하는 종교기관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대의와 참된 신앙에 얼마나 무한한 손해를 주겠는가!

그리고 사실 그러한 무한한 손해는 모든 시대와 많은 장소에 국가에 의해 설립된 종교기관으로 인한 결과였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고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즐겨야 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왜 우리는 이 특권을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시켜야겠는가? 성공회 신자들도 이러한 자유를 주장하며 누려야 합당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자유가 그들에게도 마땅히 허락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처럼 종교적인 자유를 맘껏 누리며 행사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주의 깊게 생각해보자. 우리는 예배, 교회정치, 치리의 방식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을 바라지 않을 권리가 있다. 우리가 사회의 좋은 구성원인 한, 우리의 원칙을 실천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구속을 받지 않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자유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성공회 신자들이 이러한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만약 그들이 주교들은 그리스도 및 주의 사도들에 의해 세움을 받은 것이기에 옳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들이 그리스도로부터 합당한 권위를 부여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주교들을 가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주장하고 요구한다. 그들은 국가기관의 힘을 통해 주교를 세움으로써 차별받기를 원한다. 분명한 진실은 복음을 따라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히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느 교파도 그

들에게 더 유리하도록 국가 권력의 조정을 받을 권리가 없다. 그리고 이 차이가 어디에서 일어나든, 그것은 성경의 규칙 밖에 있으며, 또한 부패한 이성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신앙의 중요성은 시민 사회와 국가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영원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의 마음에 가장 강력한 구속이다. 따라서 자유 국가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것은 믿음과 행위의 규칙으로 복음을 붙들고 그에 따른 양심의 신성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확고하여진 종교 생활양식과 관습, 특히 하나님에 대한 공예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원칙과 태도를 형성하기 때문에, 복음의 정신과 단순성에 부합하는 변화 및 변동은 정부에게 매우 위험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 12. 그리스도의 나라

출처: *Political Sermons of the American Founding Era (1730-1805)*, ed. Ellis Sandoz (Indianapolis: Liberty Press, foreword copyright 1991), 179-206;

저자: 새뮤얼 데이비스(Samuel Davies, 1723-1761): 장로교 목사로 미국 델라웨어 주 뉴캐슬 카운티 서밋 리지 근처에서 태어났다.

역자: 김선형

왕들과 왕국들은 인간의 언어 가운데 가장 장엄한 소리다. 그것들은 처음 인류가 자연의 상태를 떠나 사회를 형성한 이후 세상을 소음, 혼란, 그리고 피로 가득 채웠다. 왕국들 간의 우위 다툼은 대대로 세계를 무장시키고 인류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거나 노예로 만들었으며 그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평화와 평온의 지역이었지만 그것은 세상에서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 이해관계로 충돌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가까운 이웃이 더 이상은 없기 때문이다. 적의 부재는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대륙의 다양한 유럽 국가들의 식민지들이 확장을 시도하고 서로를 향해 접근하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이제는 전쟁의 침략, 황폐, 만행, 그리고 모든 공포가 우리를 둘러싸고 경고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침략을 받아 황폐해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출혈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이른 연초에, 경고에 경고를 받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보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크게 울릴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소동과 동요가 나에게 한 가지 좋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것은 최근에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혼란과 폭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평강의 왕자의 나라로 이끌리고 있다. 내 형제들이여, 이에 나는 지금 이곳에 머문 당신들의 생각을 떠들썩한 세상에서 벗어난 최고의 피난처이자 평온함을 사모하는 이를 위한 최고의 저택으로 옮겨주고자 한다.

내 마음에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주제들로 당신을 맞이하는 것이 당신과 나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내가 이번 주제를 선택한 이유이다. 나의 글에서 당신은 한 왕국을 주장하는 어떤 분에 대해 들을 것이다. 당신이 그분을 외모로만 취한다면 당신은 그분을 인류 중 가장 비열하고 사악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어떤 강력한 왕이 그의 문장을 지닌 귀족들을 대동하고 승리의 군대 앞에 서서 그가 권력으로 얻은 왕국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멸시 받은 나사렛 사람은 그의 추종자들에게 버림받고, 극악한 범죄자로 비난 받았으며, 빌라도의 법정에서 무방비 상태로 서서, 죄인과 노예처럼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그는 심지어 왕의 태도로 그의 재판장에게 말했다.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요 18:37). 이런 상황에서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정말 이상한 말들! 그러나 사실은 그의 이런 모습 뒤에는 위대하고 신성한 분이 감춰져 계신 것이고 그의 나라를 얻는 데에는 그의 수욕과 십자가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유일한 길이란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런 고난은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고, 이로 인해 그는 백성을 값 주고 얻었으며 또한 그들을 다스릴 권한을 얻었다.

여기서 의도된 나라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아

나라 그리스도가 중보로 계시는 나라다. 이 나라는 우리의 죄악 된 세상을 향해 은혜와 긍휼로 통치하는 나라다. 그 나라는 타락한 인류의 죄인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며 구원의 복된 결과가 이 땅에 국한되지 않고 가장 완벽한 형태로 하늘에서 나타나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종종 천국으로 불린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한 보다 완성된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포함된다.

이 땅에서의 그의 나라는 초기 단계이나 하늘에서 완성될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같다. 비록 이 나라가 직면한 계획은 죄 많은 인류 가운데 믿는 자를 구원하는 것이고, 특별한 의미에서 그들은 그 나라 백성이며, 이미 이 나라는 모든 세계, 하늘과 땅 그리고 지옥에까지 닿고 있다. 주님은 그의 교회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엡 1:22)가 되셨다고 사도가 언급한 것처럼 온 세상은 이 중보자의 통치 아래 놓여있다.

중보자로서 그는 인간의 회복을 위해 영광스러운 계획을 수행하며 온 우주가 이 위대한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고 직접 관여되어 있다. 그러니, 주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이런 목적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대적들을 통제하기에 그들 모두가 그에게 복종한다. 중보자인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의 대장이므로 천사들을 시켜 구원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한다(히 1:14). 이 영광스러운 피조물들은 언제나 그의 광대한 나라의 어느 곳에서든 그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가 중보하는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기뻐한다.

이 계획은 또한 타락한 천사들이 깊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들은 거의 6천년 동안 그들의 힘과 기술을 결합하여 주의 나라를 교란하고 전복시키려 하였고 구원하는 사랑의 계획을 파괴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복종되었고 주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들의 사슬을 늘리기도 하고 조이기도 했다. 그들은 주의 허용하는 범위를 조금도 넘어설 수 없다. 성경은 우리의 세상을 죄와 비극의 상태에 놓여 있는 사탄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다. 죄인들은 죄의 노예인 동시에 사탄의 노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불순종이야말로 이런 지옥의 왕자를 존중하는 행동이다.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의 임금…어둠의 권세…공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고후 4:4; 요 12:31; 눅 22:53; 엡 2:2)이다. 또한 죄인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된”(딤후 2:2) 자들이다. 죄인들을 다시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로의 회복을 위해 선택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전장에서 무장된 군사들이다. 이들은 육신의 병기가 아닌 확실한 영적 진리의 논거와 기적을 지닌 사역자들이다. 이들은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고후 10:3-5)으로 무장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엡 6:12) 씨름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린 빛난 승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죄인들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유와 은혜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낮설고 멀시 받던 병기인 십자가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그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그들을 이기셨다”(골 2:15). 사도는 말하기를 “죽음을 통하여” 그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했다고 한다(히

2:14). 만일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바쳐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사탄의 폭력과 압제 속에서 영원히 머물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을 위해 자유와 생명과 구원을 샀다. 이처럼, 그는 어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것을 그의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나라로 바꾸셨다. 그러므로 그의 구속의 권한에 근거하여 그의 중보적 권한은 지옥까지 닿으며 그의 기쁘신 뜻대로 악의에 찬 격렬히 날뛰는 통치자를 통제하고 제압한다.

더 나아가, 자연 세상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주님의 계획과 연관되어 중보자이신 그분께 복종한다. 그분은 태양을 뜨게 하시고 비가 내리게 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게 하셔서 그의 은혜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신다. 또한 그분은 그의 나라의 상속자들을 키우고 지지하고 도와주신다. 한편, 이 땅의 나라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된 세상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나라가 세워졌고 또한 그들 역시 그 나라의 백성들이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특성 때문에 다른 부류의 백성이다. 그들 대다수가 주의 통치에 거역하는 반역자들이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며 그분을 섬기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분의 법을 따르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백성들이다. 즉, 그들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주께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대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것이다. 이런 권능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주의 은혜로운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필연적이다. 만일 그분이 그의 대적들을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그의 사역과 사랑의 목적을 용케 막아버릴지도 모른다.

이런 특성을 지닌 저속한 반역자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 역시 자주 그분의 나라에 대항해 왔다. 때때로 그들은 그 나라를 파괴했다고 자화자찬 해왔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들 위에 절대적이며 최고의 통치권으로 다스리며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대로 그들을 뒤엎으셨다. 그분은 그의 위대한 중보적 사역의 계획대로 모든 혁명들과 나라들과 거대 왕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들의 단합된 전략과 무력이라도 주의 중보적 사역을 좌절시킬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무지한 반항적인 백성 외에, 그분에게는-그의 이름에 축복이 있으라!-그를 기꺼이 따르며 그의 백성이 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의 권위를 존중하고 그의 나라를 사랑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고자 살피며 그의 뜻을 행한다. 그분은 이들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 다스린다. 그는 이후 그들을 그의 영광의 나라를 위한 행복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이다. 내가 특별히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 이들에 대한 그분의 통치다.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수백만의 인류가 그의 통치 아래에 있고 그 상태는 영원할 것이다. 그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롬 14:9)시며,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세계(지옥뿐 아니라 천국을 포함해서)와 죽음(계 1:18)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가 열쇠를 돌려 죽음의 문을 열면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옮겨진다. 그는 하늘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받아주신다. 그는 지옥의 문을 열어 거룩한 정의를 따라 그 안에 죄수들을 가두실 것이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세계의 영역들과 각 영역에 모여든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권위를 영원토록 행사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전 우주적으로 펼쳐 있는 구속자의 나라를 보라! 이런 점에서 주의 나라는 지구상의 모든 왕국들과 얼마나 다른가? 영국, 프랑스, 중국, 페르시아 왕국은 세계의 작은 점들에 불과하다. 우리 세계는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군주제라 불리는 제도에 의해 억압을 받아왔다.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특히 로마가 그러했다. 그러나 사실, 이들 나라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전 세계적인 것과는 거리가 멀어서, 이 땅의 상당 부분은 그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주의 나라는 엄밀하게 전우주적인 나라다. 그것은 땅과 바다로 뻗어 있다. 행성을 넘어 하늘의 모든 별들을 넘어간다. 아니, 가장 높은 대천사들의 왕좌를 넘어 지옥에서 가장 낮은 심연까지 닿는다. 연약한 인간의 손에 들린 세상 제국은 거대하며 통제하기 어렵다. 혼란의 무더기이자 인류의 짐이다. 세상 제국은 항상 영광에서 급하게 곤두박질치다가 자기의 무게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하지만 예수님의 나라는 완전히 전우주적 나라이며 그 영역은 광활하다. 그의 손은 완전한 왕권을 붙들고 있다. 우리의 이 세상이 그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그는 우리에게 혼란스럽게 보이는 모든 것을 완전한 질서로 바꾸시고 온 세상에 그의 무한한 통치가 조금도 잘못될 수 없음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다양한 이방 나라들이 있고 유대인들은 아직 국가적인 차원에서 개종한 적이 없다. 하지만 당신은 유대인들의 소망과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로마서 11장에서 분명하게 예고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후대들은 행복한 미래에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떤 근거로 볼 때, 아주 멀지는 않은 것 같다. 나는 우리의 죄악 된 세상이 영광스러운 날들을 볼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서 살고 또한 죽을 것이다! 그렇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멸시 받는 복음은 우리 시대와 나라에 거의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치 태양처럼, 번개처럼 이 땅의 어두운 지역들을 비출 것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감염시켰던 모든 치명적인 실수를 이겨낼 것이다. 하나님의 경륜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전 우주적인 심판이 이르기 전에 있어야 할 많은 예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나면, 모든 자연을 통해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없음이 선포될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오르셨던 그 예수님이 최고 재판관으로 보좌에 올라 이루어진 사건들을 심사하실 것이다. 그 다음, 그는 지금의 자연의 과정과 통치의 형태를 끝낼 것이다. 그리고 하늘과 지옥이 저마다의 거주민들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시간은 마치고 끝없는 영원이 동일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나라도 환경이 바뀌고 통치 형태가 달라질 것이지만 끝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주의 나라는 정확히 말해 하늘나라다. 그리고 세상 끝에서, 그의 백성들은 이 낮은 땅에서 더 영광스러운 나라로 옮겨질 것이다. 그곳에서 그들은 그들의 왕과 가장 사랑스러운 친밀감을 나누며 이 땅의 쉴 새 없던 세상의 소음과 소란, 나라들의 혁명과 동요, 그리고 전쟁의 공포와 핍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오직 완벽한 사랑, 평화, 그리고 행복이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비록 지금은 겉으로 볼 때 작아 보일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나라의 최종의 가장 빛나는 상태다. 이것이 그분의 위대한 통치의 최종 결과다. 그 결과는 열망하는 세상 나라들에게 주의 영원한 경륜이 얼마나 지혜롭게 계획되고 영광스럽게 집행되었으며 얼마나 완벽하게 완성되었는지를 드러낼 것이다. 어떤 정복자가 그런 왕국을 세웠는가! 복되신 예수님의 백성들만큼 영원히 행복한 백성들이 어디 있겠는가!